

나를 보며 번뇌 내려놓으라는 '꽃부처'

조재익 작가, 3월 9~15일 '붓다-꽃이 피다'展

캔버스 속 넘대데한 부처님 얼굴이 한없이 평온하다. 손을 뻗으면 어루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합장한 부처님 주위로 무수히 많은 꽃잎이 흩날린다. '꽃잎이 부처인가, 부처가 꽃잎인가.' 문득 꽃잎과 부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진리 속에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차이를 표현한 그림에는 긴긴 여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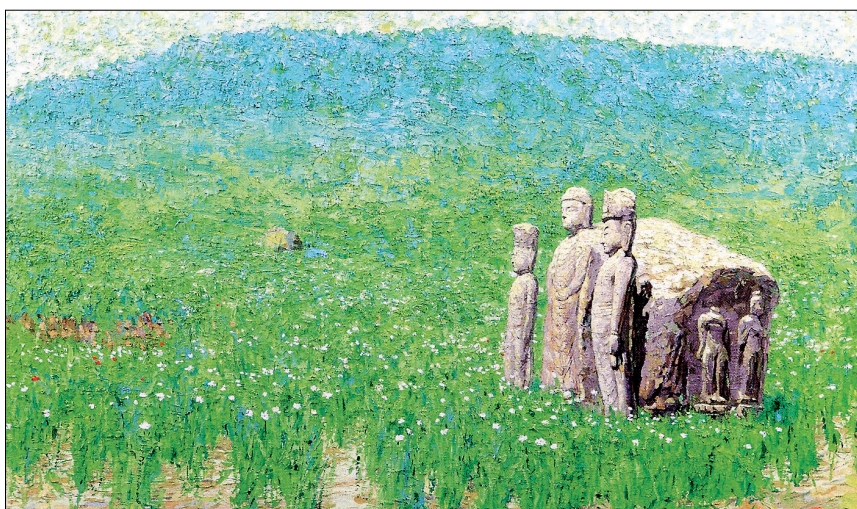
불상과 절터 등을 소재로 10여 년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재익 서양화가의 제16회 개인전 '문득, 꽃이 피다'가 3월 9~1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부처와 꽃, 옛길, 오두막 등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림 15여 점이 선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붓다-꽃이 피다 I'. 주위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 사이에서 부처님은 합장한 채 고요히 미소만 띠고 있다. 활짝 핀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하고, 이내 '화무십일홍'을 절감케 하듯 나뭇가지와 작별하며 멀하는 꽃잎. 부처님은 마치 순리이자 진리인 반복되는 생멸의 연속에 일회일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작가는 이를 통

해 불교적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면서도 부처와 꽃을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으로 표현했다. 또한 번민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범부중생이 사바세계에 오롯하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조재익 화가는 "불교를 공부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상과 꽃을 조화시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다"고 전시회 작품을 소개했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조 씨는 소신적 치기 어린 마음에 남들에게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다. 자신의 이상들처럼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나'를 잃었다. 서른 중반에 찾아온 방향이었다. 그러다 불교 수행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2007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안마 세우민수행센터로 떠났다. 그곳에서 '위라담마'라는 법명을 받아 스님으로 살았다. 그러곤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지금 이대목이 그 자리." 한국에 돌아온 그는 작품 활동을 다시 이어갔다. 이때부터 그의 작품에는 그간 줄곧 내뿜었던 욕심이 사라졌다. 대



'붓다-꽃이 피다VI' (조재익 작)

신 부처님과 평온함을 전해주는 소재들이 등장했다.

"수행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던 방향 자체가 없어졌죠. 어렸을 때부터 버리지 못했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듯이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기회가 되길 서원했다. 또 더 많은 불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는 희망도 잊지 않았다.

"불상 앞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

부처와 꽃, 존재 깨어나는 순간 유희물감 덧칠, 질감 깊이 표현

불교 공부하며 주변 고통 관심 "보는 이들의 마음 평온해지길"

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앞으로는 사찰이나 많은 불자들이 찾는 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함



'붓다-꽃이 피다 I' (조재익 작)

께 소통했으면 합니다." 그가 선보이는 작품은 유희물감을 여러 겹으로 덧칠해 마티에르(matiere, 질감)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들이다. 때

문에 꼭 입체적이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막연하게 쫓기만 했던 우리네 행복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듯 말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미세한 붓끝서 만들어낸 佛心の 정수

매현 박경빈 사경전, 4월 30일까지 목아박물관서

6만9000여 자 담긴 보탑도 등 사경 작품 20여 점 전시 '눈길'

수행의 일환이었던 사경(寫經)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경기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4월 30일까지 매현 박경빈 사경전을 특별초대전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경빈 작가의 사경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가로 70cm, 세로 200cm 안에 <묘법연화경> 6만9384자의 경문을 담은 9층 보탑도는 압권이다. 이밖에도 부모은중경십계찬송을 번상도와 함께 한글로 사경한 병풍, 금강경 보탑도, 그리고 심우도 등도 눈길을 끈다.

매현 박경빈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전통 사경 기능전승자인 외길 김경호 선생은 "백지묵서<묘법연화경보탑도> 작품은 가로 70cm, 세로 200cm의 한지에 약 7만



박경빈의 '심우도'.

자의 경문을 9층 보탑의 모습으로 배치하여 서사해낸 수작"이라며 "경문 1글자의 자경은 2mm 내외이다. 이 안에서 각 글자의 모든 필획을 분명히 구사해낸 것은 심신의 해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매산 김선원 한국교육서화협회 이사장은 "우리 문화의 정수는 불교에 있고 불교의 사경이란 우리 정신문화의

지대한 보고"이라면서 "매현 박경빈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천착해 온 것처럼 간단없는 정진으로 일관하면 마침내 산을 보고자하면 물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현 박경빈 작가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서예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서예 단체의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2015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 1월 6일~12일 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의 기획 초대전 21세기 한국사경 정예작가의 일원으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매현 박경빈 작가는 "사경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보다는 내면에 깃들여져 있는 올바른 정신 세계를 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묵(墨)의 색깔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얀 종이 위에서는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의 모습만 받아들인다. 이를 영롱한 법사리의 예술품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031)885-9952-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韓日 반가사유상 차이점은 무얼까

국립중앙박물관, 3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진행

한국과 일본 반가사유상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전시회 설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에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3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상설 전시관을 중심으로 불교 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반가사유상(불교조각실, 3/16) △불상의 봉안과 의식(불교조각실, 3/23) △통일신라 철불(통일신라실, 3/30)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 (3/9, 3/16, 3/23, 3/30)의 전시 설명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동안 한국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온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 및 복원 사례 등에 대하여 매주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개최하고 있는 기획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3/9, 3/16, 3/23, 3/30)의 전시 설명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을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유희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 고 가르치고 싶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데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교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애달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도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를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되던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자) 중중우전진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